■ 민족문화연구 제88호(2020.08.31),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pp.309-335.
http://doi.org/10.17948/kcs.2020..88.309

韋史 申錫禧의 글쓰기에 나타난 대외인식의 특징
—洋擾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김용태(金龍泰)*

목 차

1. 머리말
2. 신석희의 官歷과 외교문서 작성
3. 양요 전후 대외인식의 시적 표현
4. '洋夷' 격퇴를 위한 작전 구상
5. 맺음말

국문초록

신석희는 신미양요 당시 수원유수를 맡아 서해안 방어의 한 축을 담당하였던 고위 관료였으며, 박규수 신석우 조면호 등과 함께 19세기 중반 서울 북촌시단을 이끌었던 인물이다. 그는 역사적으로나 문학사적으로 비중 있는 인물이라 할 수 있는데 관련 자료가 흩어져 버린 탓에 본격적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다가 최근 고려대학교 해외한국학 자료센터에서 일본에 소장된 신석희 문집을 촬영하여 일반에 제공하게 됨으로써 본격적 연구가 가능하게 되었다. 본고는 학계에 제출되는 신석희에 대한 첫 번째의 본격적인 연구라 할 수 있는바 관료로서 그의 활동 양상과 사상적 지향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연구의 마중물이 되고자 한다.

* 성균관대 한문학과 부교수.

신석희는 1842년 35세에 관계에 나아가 1873년 66세에 이조판서 재임 중 삶을 마쳤는데, 1861년부터 지속적으로 외교문서 작성에 깊이 관여하였다. 이는 그의 문장력이 매우 뛰어났기 때문이며, 이런 활동을 통해 그는 해외 정세에 대해 남다른 식견을 쌓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그는 일찍부터 海防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며 兵書에 대해서도 깊은 탐구를 하였다. 그는 침투해 오는 서양 세력에 대해 외교적 수단보다는 군사력으로 몰아내는 방법을 선호하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1871년 수원유수로 있을 때 신미양요가 발발하자 그는 수원과 서해안의 방비에 나름 심혈을 기울였으며 火攻을 이용해 적선을 물리칠 구체적 작전계획을 입안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신석희의 대외인식은 '주전론'으로 명명할 수 있겠지만, 관념적 위정척사론과는 분명히 구별되는 지점이 있다. 앞으로 이와 관련하여 폭넓게 논의하며 그 의의를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신석희, 신석우, 박규수, 조면호, 신미양요.

1. 머리말

위사 신석희(1808-1873)는 19세기 중반 서울 북촌시단의 주요 작가였다. 李裕元은 『林下筆記』에서 "내가 일찍이 여러 재상들과 함께 중국에서 온 문서를 열람하는데 그중의 한 구절이 문리가 통하지 않았다. 좌우의 의론이 분분하여 어느 것을 따라야 할지 몰랐는데, 그때 위사 신석희가 분석하여 판단하니, 모든 사람들이 그 의견에 쏠렸다. 위사는 文苑의 명망 있는 사람이다."[1] 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유원은 소론이었기에 신석희와는 당파가 서로 달랐지만 이같은 고평을 하였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당대 신석희의 文名이 매우 높았음을 짐작케 하는 일화라 할 수 있다.

또 黃玹은 『梅泉野錄』의 '渭士 金尙鉉' 조에서 "당시에 신석희가 북촌에 살았는데 호가 韋史로 그 또한 글을 잘했다. 그래서 한때 노론 才子를 손꼽을 때, '북에는 韋史요, 남에는 渭士로다'라고들 하였다."[2]라고 하는 당대의 인물

1) 李裕元, 「字音誤解」, 『林下筆記』 卷29 春明逸史.
2) 황현 저, 임형택 외 역, 『역주 매천야록』 상, 문학과지성사, 2005, 103면.

평을 소개한 바 있다. 신석희와 김상현(1811-1890)은 연배가 비슷한데 둘 다 시를 잘하고 雅號의 음도 똑같이 '위사'여서 병칭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던 듯하다. 이 또한 신석희의 문명이 높았음을 보여주는 기록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趙斗淳은 신석희의 문학에 대하여 "관각에서 지은 글들은 크게 꾸며 아름다움을 윤택하게 하고 아홉 빛깔 봉황의 반짝임을 약동시킨다."[3]고 칭송한 바 있다. 실제로 신석희는 1866년 예문관 제학의 신분으로 왕을 대신해 「諭中外大小民人等斥邪綸音」 즉 병인년 '척사윤음'을 찬술하기도[4] 하는 등 당대의 대표적 관각문인으로 활동하였다.

신석희가 처음 학계의 관심을 받게 된 것은 朴珪壽와의 교유 때문이었다. 김명호 교수는 박규수와 신석희가 "같은 해에 문과 급제한 동방으로 나란히 정계에 진출하여 더욱 가까운 사이"였으며, 신석희는 "박규수와 마찬가지로 서화에 관심과 조예가 깊었"다고 보고하였다.[5] 김명호 교수는 이 논고에서 신석희의 형 海藏 申錫愚(1805-1865)도 언급하였던바 이후 신석우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이어지고 있다.[6] 하지만 아직까지 신석희에 대한 구체적 연구는 이루어지지 못했는데[7] 이는 그의 저술이 흩어져 있어 연구가 힘들었기 때문이다. 우선 국내 공공기관에 소장되어 있어 검색 목록에 오른 신석희의 저작목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韋史詩稿』,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1책.
- 『韋史集』(※표제는 '韋史詩集'),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1책.

---

3) 趙斗淳, 「申尙書(錫禧)六十一歲序」, 『心庵遺稿』 卷28. "館閣上所述作, 有以潤大賁之華, 而騰九苞之曜."
4) 박종천, 「척사윤음 연구」, 『종교학연구』 제18집, 한국종교학연구회, 1999, 127면 참조.
5) 김명호, 「환재 박규수 연구(2)—은둔기의 박규수 상」, 『민족문학사연구』 통권 6호, 1994, 64면. 이 논문의 내용은 수정 보완되어 『환재 박규수 연구』, 창비, 2008에 수록되었다.
6) 김윤조, 「실학파문학의 계승양상에 관한 연구—특히 북학파의 경우를 중심으로—」, 『대동한문학』 제8집, 대동한문학회, 1996; 김명호, 「해장 신석우의 『입연기』에 대한 고찰」, 『고전문학연구』 제32집, 한국고전문학회, 2007; 이관성, 「해장 신석우의 생애와 문학론」, 『한문학보』 제17집, 우리한문학회, 2007; 장진영, 「海藏 申錫愚의 『入燕記』 硏究」,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2011; 이지은, 「신석우의 『입연기』를 통해 본 조선의 국제정세인식」, 『사학지』 제58집, 단국사학회, 2019.
7) 필자는 박규수의 시회 활동을 서술하면서 신석희의 자료를 활용한 바 있다. 김용태, 「박규수의 시사활동 연구—시사 동인들의 자료를 중심으로」, 『환재 박규수 연구』, 학자원, 2018.

- 『韋史詩草』, 고려대학교 도서관 소장, 1책.
- 『韋史詩稿』, 부산시 시민도서관 소장, 1책.[8]
- 『瓊琚』, 고려대학교 도서관, 1책.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韋史詩稿』에는 254題의 시가 詩體에 따라 편차되어 있는데 1849년부터 1871년 무렵까지 지은 작품들이 수록되어 있다. 역시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韋史集』에는 55題의 시가 역시 시체에 따라 편차되어 있으며 창작연도는 1849년부터 1870년 무렵까지로 파악된다. 『韋史詩草』는 10여 장의 영본인데 『韋史詩稿』의 앞부분 시들이 똑같이 필사되어 있다. 『瓊琚』는 신석희 형제가 집안사람들과 주고받은 편지를 묶어 놓은 첩자이다. 이 자료들은 차후에 정밀한 교감 작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국내의 자료는 모두 시선집이 주종을 이루고 있어 신석희의 생애와 문학세계를 조명하기에는 부족한 형편이었다.

국외의 자료로는 일본 京都大學 '가와이 문고'에 신석희의 문집 6책이 아래와 같이 소장되어 있다. 국내 자료에 비해 훨씬 내용이 풍부한데 지금까지는 국내에서 이용할 방법이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고려대학교 해외한국학센터에서 이 자료를 모두 촬영하여 인터넷으로 이미지를 제공하게 됨으로써 드디어 본격적 연구가 가능하게 되었다.[9]

- 韋史文稿1 (祝文, 策, 書, 狀, 志, 論, 說, 雜著)
- 韋史文稿2 (疏, 箚說, 收議)
- 韋史文稿3 (頒敎文, 玉冊文, 箋文, 致詞, 樂章文, 祭文)
- 韋史文稿4 (綸音, 謝恩表, 敎書, 啓辭, 咨文, 書啓)
- 韋史文稿5 (序, 記, 跋, 碑文, 銘, 祭文)
- 韋史詩稿

'문고'는 5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권수가 따로 매겨져 있지는 않다. 문체의

8) 부산 시민도서관의 『韋史詩稿』는 필자가 아직 살펴보지 못했는데 목록의 '筆寫影印本'이라는 부기와 크기(44cm)로 미루어 보면 국립중앙도서관의 『韋史詩稿』를 복사한 책이 아닐까 짐작된다.

9) 京都大 소장 『위사문고』에는 권수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데, 〈해외한국학 자료센터〉에서 임의로 번호를 부여해 놓았다. 이후 이 책을 인용할 경우에는 이 번호를 표시하여 구분하였다.

분류도 정연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아 문집 간행을 위한 본격적인 편집 과정은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산문이 풍부하게 실려 있기에 신석희의 정치적 견해나 문학, 예술에 대한 취향을 연구함에 있어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시고'는 209題의 시가 역시 詩體에 따라 실려 있는데 국립중앙도서관의 『위사시고』에는 실려 있지 않은 만년의 작품들이 풍부하게 수록되어 있다는 특장이 있다.

이제는 이상과 같을 자료들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관련 연구들이 활발히 제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본고는 신석희에 대한 작가론의 일환으로, 그의 생애와 관력을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또 그가 관료로서 수행했던 글쓰기 가운데 '洋擾'와 관련된 글들을 주로 살펴보고자 한다. 당시 가장 중요한 대외적 사건은 역시 병인양요와 신미양요라고 할 수 있는데, 신석희는 중앙의 고위관료로서 양요의 대응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신석희라는 '작가'이자 '역사 인물'을 이해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지점이라 할 수 있다. 본고의 논의를 통해 신석희의 사상과 문학에 대한 후속 연구가 활발히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2. 신석희의 官歷과 외교문서 작성

신석희의 본관은 平山으로 思簡公派이며 자는 士綏, 韋史는 그의 호이다. 증조부 申韶(1715-1755)는 대명 의리에 투철했던 성리학자였고, 조부 申光直(1738-1794)은 그 백씨 申光蘊(1735-1785)과 함께 朴趾源의 가까운 벗이었으며 洪大容과도 절친하였다. 생부는 申在業(1767-1815)이고 외조부는 안동 김씨 金履度(1750-1813)이다. 신석희는 백부인 申在正(1763-1821)의 양자로 입적되었다. 신석희의 妻父는 徐膺淳(1783-1862)이다. 참고로 당대 노론계의 대표적 시인이었던 趙冕鎬(1803-1887)의 외조부가 김이도였기에 두 사람은 이종사촌 관계였으며 실제로도 대단히 친밀한 사이로 함께 북촌 시단을 이끌었다.

신석희는 1834년(27세) 진사시에 합격하여 1842년(35세) 北部都事에 제수됨으로써 관직 생활을 시작하였다. 이후 司饔院 奉事(1843), 活人署 別提(1844), 敦寧府 主簿(1847) 등 하위직을 거쳐 1848년(41세) 문과에 급제하였다. 이후

禮曹正郎, 兵曹正郎, 忠淸都事 등의 관직을 거쳐 1849년 司諫院 正言이 되었는데 이해 4월 李書九(1754-1825)의 삭탈관직을 강하게 요구하는 상소를 올려 노론 시파로서의 당파성을 선명하게 드러내었다.[10] 이때 헌종이 완강하게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신석희는 한 달 넘게 입궐을 거부하기도 하였다. 9월에는 황해도 암행어사의 명을 받아 나갔다가[11] 1850년 철종 즉위 후 3월 16일에 복명하였다. 이후 신석희는 홍문관 수찬에 제수되어 다시 이서구의 삭탈관직을 요구하며 한동안 입궐을 거부하기도 하였다.

당시 조정은 眞宗(영조의 첫째아들)의 祔遷 문제로 신료들 사이에 대립이 첨예했으니 왕통을 강조하면서 조천이 마땅하다고 주장하는 안동김씨 세력과 혈통을 강조하면서 조천을 반대하는 풍양조씨 세력이 강하게 맞서고 있었다. 이때 홍문관 부교리였던 신석희는 조천에 반대하는 權敦仁을 탄핵하는 상소를 올림으로써 다시 한번 정치적 입장을 분명히 드러내었다.[12]

이후 신석희는 1853년 9월 谷山府使로 나갔다가 1854년 順天府使로 자리를 바꾸었다. 이때 삼남 지방에 극심한 가뭄이 들자 조정에서는 신석희를 慰諭使로 삼아 민심을 위무토록 하였다. 1855년에는 成均館 大司成에 제수되어 내직으로 돌아왔고 곧이어 승정원 동부승지가 되었다. 그런데 1856년 다시 가뭄이 들자 6월에 慶尙道 慰諭使로 파견되었다가 6월에 복명하였다. 당시 경상감사는 신석희의 형 신석우였다.

1857년에는 弘文館 副提學, 吏曹參議을 역임하고 1858년에는 奎章閣 直提學, 藝文館 提學을 역임하였다. 1859년에는 刑曹參判, 都承旨, 吏曹參判 등 내직을 역임하다가 12월에 黃海道 觀察使에 제수되어 1860년 2월 임지로 떠났다. 1861년 1월 都摠管에 제수되며 내직으로 돌아와 2월에 禮曹判書에 올랐다. 이때 연행사의 편의를 청나라 측에 요청하기 위해 「禮府覆啓(辛酉)」(『韋史文稿』4)[13]를 지었다. 5월에는 漢城府 判尹에 제수되었다. 1862년 7월 知義禁

10) 『승정원일기』 헌종 15년 4월 3일 기사 참조.
11) 申錫禧, 「己酉九月九日奉海西持斧之命 出寓三溪山庄 伯氏次壁上東坡詩韻 贈別 敬和以復」, 『韋史詩稿』, 국립도서관 소장본 참조.
12) 申錫禧, 「辛亥七月日 玉堂言事疏」, 『韋史文稿』 2, 일본 京都大 소장본 참조. 이 상소는 『승정원 일기』, 『실록』에는 실려 있지 않다.

府事에, 10월 형조판서에 제수되었다. 11월에 다시 한성부 판윤을 맡았다가 1863년 7월 다시 형조판서가 되었다.

고종이 즉위한 1684년 다시 형조판서에 낙점되었고 1866년 예문관 제학이 되었다. 이해 8월 예문관 제학의 자격으로 「斥邪綸音」(8월 3일)을 저술하고, 프랑스 선박 3척이 한강 서강 어귀까지 올라오는 사건이 발발하자 이를 중국에 알리는 「北京禮部咨文」[14]을 작성하였다. 10월에는 병인양요가 일어났었음을 일본에 알리는 「日本書契」도 작성하였다.[15]

1867년 1월에는 국경을 넘어온 러시아인을 섬멸하는 사건이 있었음을 청조에 알리는 자문(“朝鮮國王 爲臚陳北地邊軍(…)”)[16]을 작성하였다. 3월에는 일본이 조선을 공격하려 한다는 신문 기사를 조선 측에 제공해온 청조 예부의 자문에 대해 회답하는 자문(“朝鮮國王 爲咨覆事(…)”)[17]을 작성하고, 그러한 소문이 사실인지 일본측에 문의하는 「日本書契」도 작성하였다.[18] 4월에는 러시아와 접경한 북쪽 상황에 대해 알려 달라는 청나라의 요청에 회답하는 자문(“朝鮮國王 爲咨覆事 同治六年三月二十四日(…)”)을 작성하였다.[19] 5월에는 러시아측에서 조선에 교섭을 요청해 왔던 일을 청조에 알리는 자문(“朝鮮國王 爲臚陳俄國情形事”)[20]을 작성하였다. 7월에는 동래부를 방문한 差倭가 조선과 새로운 우호 관계를 맺어 무기 교역을 하자고 버티며 돌아가지 않자[21] 이에 응할 수 없으니 사신을 물리라는 요구를 담은 書啓(“商吹膦凉緬惟鼎茵珍穆”) 및 「禮曹參議答書契」, 「禮曹參議順付答書契」[22]를 작성하였다.

---

13) 이하에서 언급되는 신석희가 지은 외교 문자는 모두 『韋史文稿』 4에 실려 있으므로 따로 출처를 표시하지 않도록 하겠다.
14) 이 문서는 『同文彙考』 三 原編 洋舶情形 조에도 실려 있다.
15) 『고종실록』 3년 10월 15일자 기사에는 禮曹參議 任晃鎬가 지은 것으로 나와있다.
16) 이 문서는 『同文彙考』 四 原編續 犯越三 조에도 실려 있다.
17) 이 문서는 『同文彙考』 三 原編 洋舶情形 조에도 실려 있다.
18) 이 문서는 『고종실록』 4년 3월 7일자 기사에도 실려 있다.
19) 이 문서는 『同文彙考』 四 原編續 犯越二 我國人 조에도 실려 있다.
20) 이 문서는 『同文彙考』 四 原編續 犯越三 조에도 실려 있다.
21) 『승정원일기』 고종 4년 7월 23일자 기사 참조. 이때 대마도는 자신들의 활로를 찾기 위해 조선과의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김흥수, 「한일관계의 근대적 개편과 대마도」,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7, 61면 참조.
22) 이 문서들은 여타의 기록에 보이지 않는다.

1868년 4월 지의금부사에 낙점되어 예문관 제학과 지의금부사를 겸직하였다. 이때 중국으로 표류한 우리 백성 申順集과 金辛仕을 청나라가 되돌려보낸 조처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는 「漂民申順集出送謝恩表」, 「漂民金辛仕等出送謝恩表」을 지었다.[23] 1869년 5월에는 중국의 비적들이 의주 지방을 어지럽히고 있다는 평안감사 朴珪壽의 장계를 토대로 청나라 측에 조처를 요청하는 자문(“朝鮮國王 爲申明前禁(…)”)[24]을 지었다. 11월에 청조 예부에서 조선의 남녀 천여 명이 국경을 넘어 러시아 경계에서 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엄격한 통제를 요구하는 자문[25]을 보내왔는데, 이에 대해 사건의 유래를 설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담은 「回咨」[26]를 지었다.[27]

1870년 2월에는 또다시 중국의 무뢰배들이 작당하여 국경을 침노해 소요를 일으켰다는 평안감사 韓啓源의 장계를 토대로 청나라 측에 엄격한 조사를 요구하는 자문(“朝鮮國王 爲備陳邊情(…)” “朝鮮國王 爲追査(…)”)[28]을 지었다. 그리고 3월에는 조선 벽동군민이 중국으로 월경해 소요를 일으켰다는 청나라의 항의 자문에 대해 사과하는 내용의 자문(“奉此除將承準貴部(…)”)[29]을 지었다. 4월에는 조선 벽동군으로 월경해 난동을 부린 중국인 楊幗太를 처벌하였음을 청조 예부가 조선측에 알리면서 사건의 근본 원인은 조선인의 월경에 있으니 조선측의 확실한 조처를 요구하자 이에 대한 회답 성격의 자문(“朝鮮國王 爲恭伸謝(…)”; “朝鮮國王 爲咨陳西沿碧潼郡(…)”)[30]을 지었다.

신석희는 1870년 4월 이조판서에 제수되었지만 외교문서 작성에 계속 관여하였다. 같은 해 5월 동래부 왜관 앞바다에 독일 이양선이 정박했다가 돌아가는 사건이 발생하자 신석희는 이를 청조 예부에 알리는 자문(“朝鮮國王 爲咨陳(…)”)[31]과 이양선을 조선 바다로 안내한 일본인 中野 등에 대한 엄한

23) 『승정원일기』 고종 6년(1869) 5월 7일; 6월 29일; 10월 6일 기사 참조.
24) 이 문서는 『同文彙考』 四 原編續 疆界二 조에도 실려 있다.
25) 「都京禮部咨文謄書(己巳十一月二十三日)」라는 제목으로 『韋史文稿4』에 실려 있다.
26) 이 문서는 『同文彙考』 四 原編續 犯越二 我國人 조에도 실려 있다.
27) 그런데 이 「回咨」에는 “朴珪壽製”라는 협주가 달려 있어 박규수가 대신 작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28) 이 문서들은 『同文彙考』 四 原編續 犯越三 조에도 실려 있다.
29) 이 문서는 『同文彙考』 四 原編續 犯越三 조에도 실려 있다.
30) 이 문서들은 『同文彙考』 四 原編續 犯越三 조에도 실려 있다.

조처를 일본측에 요구하는 「異樣船去來情形禮曹參議書」[32]를 지었다.[33] 8월 조정에서 관서 지역의 관리를 위해 慈城을 다시 설치하고 厚昌의 경계를 조정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을 알리는 자문(“朝鮮國王 爲西沿空地設邑(…)”)[34]을 작성하였다. 10월에는 조선 백성들이 러시아 경내에 들어가 거주하는 문제를 들어 청나라가 조선과 러시아의 관계를 의심하는 내용의 자문을 보내오자 이에 대해 해명하는 내용의 자문(“朝鮮國王 爲咨覆事(…)”)[35]을 보냈다. 10월에 예조판서로 옮겼다. 1871년 1월 水原 留守가 되었다. 1873년 1월 이조판서가 되었으나 같은 해 4월 15일 세상을 떠났다. 시호는 孝文이다.[36]

3. 양요 전후 대외인식의 시적 표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석희는 오랜 기간 외교문서 작성에 깊이 관여했으므로 대외 정세와 관련된 고급 정보를 많이 파악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개인적으로 쓴 시와 문에서도 대외인식을 살펴볼 수 있는 글들이 산견된다. 신석희는 당대 집권세력의 일원이었으므로 그를 통해 19세기 중반기 당대 집권층이 가졌던 대외인식의 한 갈래를 파악하는 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37]

신석희가 1862년에 지은 「脚氣吟」(교토대 소장 『韋史詩稿』 수록)은 7언 202구의 장편 고시인데 제목도 낯설고 내용 구성도 특이하다. 시적 화자가 목도한 宦路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내용인데 마지막 구가 “선생의 다리 병은 참으로 고

31) 이 문서는 『同文彙考』 四 附編續 邊禁一 조에도 실려 있다.
32) 이 문서는 『同文彙考』 四 附編續 邊禁一 조에도 실려 있다.
33) 이때 왔던 이양선에는 일본주재 독일 대리공사 란트가 타고 있었으며 그 배의 이름이 헬타였음이 한국사 연표 등의 자료에 제시되어 있기는 하나, 이 사건에 대한 심화된 연구는 없는 듯하다. 신석희가 작성한 이 문서들을 활용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4) 이 문서는 『同文彙考』 四 原編續 疆界二 조에도 실려 있다.
35) 이 문서는 『同文彙考』 四 原編續 犯越二 조에도 실려 있다.
36) 平山申氏思簡公派宗中 編, 『平山申氏思簡公派譜 2』, 회상사, 1990, 490면 참조.
37) 이 시기 대외국방정책에 관한 선행 연구로는 연갑수, 『대원군집권기 부국강병정책 연구』, 서울대 출판부, 2001이 중요하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정책과 제도 차원의 서술에 집중되어 있어 집권층에 속하는 개인들의 견해를 살피지는 않았다. 앞으로는 구체적인 개인들의 견해를 살피는 쪽으로 연구가 심화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본고에 그러한 연구에 일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치기 어렵기에, 한낮에도 할 일 없어 필묵을 희롱하네[先生脚氣眞難醫, 日長無事弄筆墨.]"라고 마무리되고 있어, 관료로서 직무에 분주하다가 다리 병이 나서 이 시를 짓게 되었다며 작품의 저작 동기를 설명하고 있다. 작품의 도입부는 한겨울에 중국으로 떠나는 사신을 전송하는 내용으로 시작된다.

(…)
관산이라 융마 타니 군악소리 떠들썩한데
나그네 전송하며 중원 소식 묻노라.
소년 천자 불과 여섯 살
동치의 연호 세워 임술년에 등극했네.
(…)
공친왕이 의정왕대신 되어 보좌하니
세 간신[38] 교수형 당해 하늘의 벌을 받았네.
僧格林沁, 袁甲三, 曾國藩, 僧保가 전쟁터를 통제하고
조정에는 맑은 무리 가득해 참소하는 말 미워했네.
하지만 너른 땅에 걱정거리 불어나니
英夷와 漢匪가 서로 날뛰네.
장강이 허리띠처럼 둘렀으나 어찌 의지할 수 있으리오
남쪽 변방 전쟁 기운이 북쪽을 혼미하게 하여
보루가 멀리서 고구려 땅을 누르니
〈정도호가〉 부르며 금 술잔을 흩뿌리네.
일찍이 나라를 튼튼히 할 계책 하나 실행하지 못했기에
죄언이 입에서 나오지만 얼른 틀어막아 버리네.
(…)

(…)
戎馬關山金鼓喧, 中原送客問消息. 少年天子今六歲, 乾元同治紀玄黓.
(…)
親王議政大臣贊, 三奸磬匈遭天殛. 僧袁曾勝制閫外, 朝著淸明讒說塞.
最是疆場滋憂虞, 英夷漢匪相掎踣. 長江衣帶詎足恃, 九邊兵氣迷直北.
譙樓迫壓幘溝漊, 丁都護濺金服匿. 曾無一策撒桑土, 罪言脫口甘摧抑.
(…)

38) '삼간'은 怡親王 載桓, 鄭親王 端華, 大學士 肅順을 지칭한다. 이 세 사람은 咸豊帝의 신뢰를 받아 동치제를 잘 보좌하라는 유촉을 받았으나 서태후와 공친왕의 신유정변 때 제거되었다.

여기서 시적 화자는 동치제 초기의 중국 상황을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공친왕과 증국번 등의 활약에 힘입어 태평천국군의 기세를 상당히 꺾었던 당시의 상황을 나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英夷와 漢匪 즉 서양 세력과 捻軍 등의 세력에 의해 長江 이북 지역이 다시 위태로워져서 한반도 인근 지역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는 위기의식의 토로가 이 단락의 주제라고 할 수 있다.[39] 이러한 상황에 대한 시적 화자의 심경이 인용문의 아래 4구에 표출되어 있다. 〈정도호가〉는 탄식을 쏟아낼 때 부르는 고대 악부이고[40] '죄언'은 당나라 시인 杜牧이 藩鎭과 용병의 문제에 대해 논한 상소문이다. 위기가 박두하였음을 인지하고 있지만 무기력하기 짝이 없는 자신에 대한 한탄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은 창작 연도가 분명치 않은 「偶書」(국립도서관 소장 『韋史集』)라는 작품인데[41] 여기서도 이양선의 출현에 무력감을 느끼며 괴로워하는 정서가 드러나고 있다. 전체 칠언절구 3수인데 다음은 두 번째와 세 번째 수이다.

행춘교 버드나무 푸르게 휘날리는데
짙은 잎 사이로 꾀꼬리는 잘도 숨네.
병서들 치워버리고 난간에 기대어 앉으니
남은 꽃이 난리 통에도 여전히 피어 있었네.

行春橋柳綠忽忽, 密葉黃鸝竄伏工. 淨掃軍書憑檻坐, 餘花猶發亂離中.

대포의 탄환이 잠시도 그치지 않노니
그 누가 火器로 생령을 해치는가.
그저 날마다 신풍주에 취했다가
서양배 떠나간 뒤에나 깨어나야지.

---

39) 당시 태평천국에 대한 조선의 위기의식에 대해서는 하정식, 「태평천국과 1850-60년대초 조선 왕조의 위기의식」, 『동방학지』 제87집, 연세대 국학연구원, 1995 참조. 이 논문에서는 신석희와 가까웠던 박규수와 신석우의 사례를 주로 분석하였다.

40) 「정도호가」의 '丁都護'는 丁昨로 東晉 말기를 살았던 인물이다. 그는 당시 백성들의 원성을 사고 있던 諸葛長民을 죽인 일이 있어 백성들은 그를 영웅으로 여겼다고 한다.

41) 『韋史集』를 보면 이 시의 다음에 「慰諭順天求禮諸邑路中作」이 편차되어 있는데 이 작품은 신석희가 순천부사와 위유사로 활동했던 1854년 즈음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우서」 역시 1850년대 전반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雷礮星丸不暫停, 誰將火器毒生靈. 祇堪日醉新豊酒, 直到洋船去後醒.

앞의 시 1, 2구는 봄날을 노래하는 전형적인 표현이라 할 수 있지만 3구에 '병서'가 등장함으로 인해 시의 성격은 일변하고 만다. 시적 화자는 병서를 뒤적이며 서양배를 물리칠 궁리를 하다가 별무소득의 답답한 심정이 들어 봄날의 경치에 눈이 닿았던 것인데, '병서들을 치워버렸다'는 표현에서 당시 상황에 군사적 방법으로 대응하고자 고심하였으나 뾰족한 방법을 찾을 수 없던 답답함이 느껴진다.

그런데 군사적 대응에 대한 열망이 현실에서 실현될 수 없다면 곧 탄식과 자조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두 번째 수에서 술에 취하길 바란다고 표현한 것은 바로 이러한 심정이었다고 보인다. 그런데 하필 王維의 「少年行」에 나오는 "신풍이라 맛좋은 술 한 동이 값이 수천인데, 함양의 젊은 유협 많기도 하네[新豊美酒斗十千, 咸陽游俠多少年.]"라는 낭만적 표현을 가져온 것은 자조적 심경의 표출하기 위한 장치라고 보인다. 시상을 보면 전체적으로 감정이 절제되지 않았음을 감지하게 되는데, 외교문서를 작성할 때의 지극히 절제된 글쓰기와는 전혀 다른 면모라는 점에 주목하게 된다.

다음은 신미양요가 일어나고 광성보 전투가 끝난 직후인 1871년 4월 30일에 지어진 「번민을 털어내다 다섯 수. 이당에게 드리고 술의 가르침을 바라다[排憫五則. 寄呈怡堂, 仍乞醑教.(四月三十日)]」(국립도서관 소장 『韋史詩稿』)의 전반부 3수이다. 이당은 조면호의 별호이다.

'車同軌 書同文'으로 만국이 사천 년 지내오매
도판과 서적에는 애초에 미리견(아메리카)은 없었노라.
한 귀퉁이 금성탕지 청정한 구역에서
동인들 또다시 極西의 배를 보네.

車書萬國四千年, 版籍元無美利堅. 一片金湯乾淨局, 東人又見極西船.

부끄럽다, 전성에서 한가로이 술 마시고 바둑두던 일
청명의 부월로 겹겹의 관문을 지키노라.
서생에겐 승리를 장담할 좋은 계책 없으니

다만 단풍나무 하늘과 대추나무 땅 사이에 달려 있네.
(새로운 법식의 마반거를 만들었다)

慚愧澶城飮博閑, 靑冥鈇鉞鎭重關. 書生制勝無長策, 惟在楓天棗地間.(造新法磨盤車)

듣건대 강화도의 어총관은
형제 모두 절의를 세워 문하에까지 미쳤다지.
그 충혼은 모래와 벌레를 따라 스러지지 않고
응당 산하의 만리장성이 되리라.

聞道江華魚摠管, 弟兄雙節及門生. 忠魂不逐沙蟲化, 應作山河萬里城.

첫째 수의 1, 2구에는 상대적으로 오랜 세월 동안 평화와 안정을 구가하였던 동아시아 국제 질서에 갑자기 틈입한 미국과 무력 충돌까지 겪어야 했던 조선의 당혹감이 표출되었다고 볼 수 있다. 2구의 '版籍'은 『宋史』나 『明史』에 수록된 「外國列傳」 등을 지칭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외국열전」에는 로마를 비롯한 유럽의 여러 나라에 대한 정보는 상당히 풍부하게 수록되어 있지만 당연하게도 신생국 미국에 대한 정보는 없었다. 그리고 4구의 '극서'란 단어의 어감이 낯설게 느껴지는데 이에 상대되는 '極東'이란 말이 여전히 쓰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생각해보게 된다. '극동'이란 말이 서양인의 시각에서 만들어진 말이라면, '극서'는 그야말로 조선의 입장에서 만든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조선의 입장에서 바라보던 세계에 대한 감각이 단절되었다는 사실을 새삼 느끼게 된다.

둘째 수의 1구는 宋代 시인 楊億과 관련된 고사를 활용한 표현이다.[42] 당시 신석희는 수원 유수로서 방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양억의 경우와 같은 치욕적인 행위는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 3, 4구 및 주석의 '마반거'와 관련하여는 조면호가 신미양요를 장편시로 그린 「後西事雜絶」[43]의 기록이 매우 유용하다. 「후서사잡절」의 제35수와 36수에서 조면호

42) 당시 송나라의 眞宗 황제는 澶州에서 거란에게 패해 매년 歲幣를 보내기로 하는 굴욕적인 맹약을 맺었다. 이후 진종 황제는 寇準에게 澶州를 지키게 하니 구준은 양억과 함께 술 마시고 놀이하며 담대함을 드러내 황제를 안심시켰다. 하지만 전투에 패해 황궁으로 소환된 양억은 두려운 나머지 대소변을 흘렸다고 한다.

는 신석희가 수원유수로서 방비를 철저히 하였음을 칭송하며 "재상들 이제는 장수의 재주도 갖추어야 하네[宰相今須將師才]"라고 제36수를 마무리하고 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주석도 달아 놓았다.

> 화성은 서울을 지키는 중요한 지역으로 서쪽으로 인천과 부평의 바다에 닿아 있다. 유수 신석희는 새로 봉화대를 설치해 바다를 감시하고 또 塘報[척후 부대]를 두어 振威 북쪽 경계와 연락하였다. 또 마반거를 마련해 대포 운용을 편리하게 하였다. 또 성 가운데에 돌을 모아두어 비상시에 성을 지킬 도구를 준비하니 이웃 고을이 모두 든든히 여겼다.[44]

마반거는 申櫶이 1867년에 『海國圖志』를 참고해 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45] 마반거는 대포의 운반을 손쉽게 하는 장비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신석희가 수원의 방비에 직접 활용하며 큰 기대를 걸었던 듯하다.[46] 이러한 조면호의 증언을 통해 볼 때 신석희는 확실히 군사 분야에 관심과 조예가 깊었다고 볼 수 있을 듯하다.

셋째 수는 광성보 전투에서 장렬히 전사한 魚在淵(1823-1871)과 그의 동생 魚在淳(1826-1871)의 '雙忠'[47]과 그 휘하의 柳豊魯, 李玄鶴 등 용감하게 싸우다 전사한 이들을 기리는 내용이다. 이들의 죽음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니 나라를 지키는 튼튼한 장성이 될 것이라는 말로 순국의 의의를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이 작품의 제4수와 5수는 위에서 살펴본 「偶書」의 제3수, 2수와

---

43) 조면호의 「서사잡절」 전후편은 19세기 시사에 있어 기념비적 작품이다. 이에 대해서는 김명호, 「옥수(玉垂) 조면호(趙冕鎬)의 〈서사잡절(西事雜絶)〉 전후편에 대하여—병인(丙寅),신미양요(辛未洋擾)의 시적 형상화—」, 『고전문학연구』 제20집, 한국고전문학회, 2001; 김용태, 『19세기 조선한시사의 탐색』, 돌베개, 2008, 237-277면 참조.

44) 조면호, 「後西事雜絶」, 『玉垂集』 卷15. "華城處三輔重地, 西連仁富海. 留守申錫禧新設烽臺, 以直於海, 又置塘報, 通振威北境. 又制磨盤車, 以便砲機, 又聚石於城中, 以備臨急守城之具, 隣境俱賴焉."

45) 박찬식, 「신헌의 국방론」, 『역사학보』 제117집, 역사학회, 1988, 74면 참조.

46) 제2수 4구의 '楓天棗地'는 본래 단풍나무와 대추나무로 각각 덮개와 바닥을 만든 占卜의 도구였다고 한다. 그런데 단풍나무와 대추나무는 영험함이 있어 이 도구를 마구간에 놓으면 말들이 놀라고, 길에 놓으면 수레가 뒤집어 진다는 속설이 있었다고 한다. 여기서는 마반거의 영험한 활약으로 서양배를 물리치고자 하였던 마음을 표현한 것으로 보여진다.

47) 어재연 형제의 문집은 『쌍충집』이란 제목으로 엮였고, 어재연을 기리는 사당 忠壯祠(경기도 이천) 경내에는 '雙忠門'이 있다. 신미양요기념사업회, 『雙忠集』, 신미양요기념사업회, 1984.

동일한 작품이다. 짐작해 보건대 신석희는 신미양요에 관한 소회를 시로 표현하여 조면호에게 보내면서 과거에 지었던 2수도 현재의 심정을 잘 표현하고 있다고 여겨 함께 동봉한 것이 아닐까 한다. 그래서 제목에도 '仍乞醰教' 4글자를 덧붙였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시들에는 서양의 무력 도발에 대해 군사적으로 단호히 대응해 응징하기를 강렬히 원했던 신석희의 열망이 드러나 있는 한편, 그것이 뜻과 같지 않은 상황에 대한 무력감과 좌절감이 동시에 표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4. '洋夷' 격퇴를 위한 작전 구상

조선 후기 실학파 학자들은 해외 통상의 필요성을 공공연하게 제기할 정도로 해외 문호 개방에 대하여 열린 자세를 취했다. 19세기 전반기에도 崔漢綺와 李圭景은 해외 통상론을 제기한 바 있었다. 그러나 1840년 제1차 중영전쟁 소식이 전해지고 1840년대 중반에는 조선 연안에 서양 선박이 연이어 출몰함으로써 지식인들 사이에 '海防'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尹宗儀의 『闢衛新編』은 그러한 문제의식을 담은 대표적 저술이라 할 수 있다.[48] 신석희는 윤종의와 가까운 벗이었던 만큼 이러한 海防의 필요성을 일찍부터 공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신석희는 1848년 海美鎭左營將이었던 朴民煥의 부탁으로 「海美南門樓重修記」(『韋史文稿』5)를 지었는데 이 글에는 海防에 대한 신석희의 관심이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다.

> (…) 고대에 兵術을 담론한 자로는 孫武나 尉繚의 책보다 이른 시기의 것이 없는데 야산이나 늪과 못의 형세와 지세에 대한 논의 말고는 한마디도 海防에 대해 하지 않았던 데에 대해 나는 일찍부터 의아하게 생각했다. 한나라 때 이르러 昆明과 牂牁 지방의 소소한 水戰이 논의되다가 아래로 당송명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차츰 해방에 대한 담론이 나왔다. 그러나 오히려 우리나라 임진왜란과 같은

48) 노대환, 「조선 후기 서양세력의 접근과 해양관의 변화」, 『한국사연구』 제123호, 한국사연구회, 2003, 362-364면 참조.

> 규모의 전쟁은 없었다. 수만 리 바다를 건너와 육칠 년 동안이나 지구전이 벌어졌던 것은 초기에 방비하여 단단히 막지 못한 탓이었다. (…) 아, 내가 비록 그곳을 답사하지는 못했지만 해미읍이 국경 방어에 있어서 갖는 중요성은 지도라던가 고장의 내력을 통해 익숙히 알고 있다. 게다가 지금은 영국 등 서양배가 연안에 자주 출몰하고 있으니 국경 방비의 일은 더욱 마음에 담아두지 않을 수가 없다. 안개 끼거나 탁 트인 바다, 도서의 배치와 같은 승경에 대해서는 다른 날 다시 와서 보충해 기록하도록 하겠다.[49]

신석희는 중국 사례를 통해 海防과 海戰에 관한 정보를 찾고자 시도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결과 그가 확인한 바는 조선 땅에서 일어났던 임진왜란은 중국 역사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엄청난 규모의 해전이었으며, 그러한 비극적 전쟁의 원인은 역시 海防의 실패에서 찾아야 한다는 점이었다. 신석희가 해미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서도 그곳의 지리적 중요성에 대해 소상히 알고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그가 해방에 관하여 나름의 준비를 하였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해미의 아름다운 풍광에 대해서는 다른 날 와서 보충하겠다는 마지막 문장은 글의 긴박감을 높이는 수사적 효과를 높이고 있다.

다음은 신석희가 1869년에 쓴 「檮徵序」(『韋史文稿』5)의 처음과 마무리 부분이다.

> 정묘년(1867)과 무진년(1868) 사이에 국서가 벌떼처럼 답지하였다. 나는 예문관의 빈자리를 채우게 되어 실로 이 일을 담당하게 되었다. 곁에 온갖 문서를 모아놓았는데 더욱 외교 문자에 뜻을 기울여 관련 책자와 초본이 쌓여 마치 수달이 물고기를 모아 제사를 지내는 것 같았다. 내가 산중으로 돌아와 한가히 아무 일 없이 있을 때 한씨의 『繹史』를 집어들어 교정하면서 다른 자료에 나와 있는 지명 및 편제를 수집해 책으로 엮어 『檮徵』이라고 이름 지었다. 어떤 객이 말했다. "공은 옛 종이 더미에 파묻혀 육십 년간 벌레처럼 늙어왔소. 산림에 숨어지내며 우뚝한 기운이라곤 없으니 무엇 때문에 답답하게 살아가오? 바둑이라도 두

49) 申錫禧, 「海美南門樓重修記」, 『韋史文稿』 5, 일본 京都大 소장. "(…) 余嘗疑古之談兵之家, 無有先於孫武尉繚之書, 而野山藪澤之勢地外, 無一語及於海防. 惟漢之昆明牂牁, 小小水戰, 下至唐宋皇明之世, 始稍稍有其說. 然猶未有若我國壬辰倭寇之警. 駕海數萬里相持六七年之久者, 以不能戒嚴於始而大爲之防焉耳. (…) 噫, 余雖不能躬履其地, 而邑之爲關防之重, 以地圖及沿革源委而知之熟矣. 況今英洋船舶有時出沒邊澨, 而關防之事, 尤不可不留心者乎. 若夫煙雲浩淼島嶼錯置之勝, 他日或復登臨而補記之云."

> 지 그러시오. (…)" (…) 아, 내가 뒤늦게 태어났기에 文天祥 선생의 바둑에 대한 담론을 듣지는 못했으나 선생의 뜻을 까마득한 뒷 시대에서 탐구하고자 필묵으로 저포를 대신하고, 수정하고 교정하는 것을 장기판 위의 말로 삼으니 나를 아는 자는 응당 내 마음을 알 것이요, 나를 모르는 자는 또한 나를 吉水에 띄운 배에서 문천상 선생과 바둑을 두었던 객이라고 부르리라.50)

앞 장에서 서술하였듯이 신석희는 1850년대부터 외교문서 작성 일을 맡았으며 인용문에 나와 있듯 1860년대 후반에는 예문관 제학으로서 외교문서 작성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었다. 이때 외교문서 작성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온갖 자료를 동원하였다는 신석희의 술회가 인상 깊게 다가온다. 그런데 그런 바쁜 가운데에서도 신석희는 개인적인 저술에도 힘을 기울였음을 인용문은 증언하고 있다. '한씨의 『繹史』'는 아마도 韓致奫(1765-1814)의 『海東繹史』를 지칭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신석희는 이 책을 교정하면서 중국의 史書와 대조하는 작업을 통해 저술을 하고 그것을 『도징』이라 이름지었던 것이라 추측된다.

위 인용문은 그 서문으로써 『도징』의 의의를 설명하고 있는데, '客'을 등장시켜 대화체의 수법을 활용하였다. 객은 저술 작업에 몰두하는 '나'를 힐난하며 바둑이라도 두는 것이 낫지 않겠냐고 권유한다. 생략된 부분에서 '나'는 송나라 말기에 송나라를 위해 충절을 바쳤던 文天祥이 바둑을 즐겼다는 고사를 가져와 문천상이 바둑의 묘리를 전투에 활용했다는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서 자신은 문천상처럼 바둑을 두지는 않지만, 저술 활동으로 바둑을 대신하고 있다는 말로 글을 맺고 있다. 자신의 저술 활동이 훗날 나라를 지키기 위한 준비임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신석희가 저술했다는 『檮儆』은 현재 전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언젠가는 세상에 다시 모습을 드러내기를 기대해 본다.

그다음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자료는 교토대 소장본 『위사문고』 1에 실려 있으며 1466자로 이루어진 장편의 산문인데 제목이 달려 있지 않다. 첫 글

---

50) 申錫禧, 「檮儆序」, 『韋史文稿』 5, 일본 京都大 소장. "丁卯戊辰間, 國書蠶午, 不佞承乏綸垣, 實膺玆役, 薈粹乘牒, 尤致意於交隣文字, 鋟本墨鈔, 如瓣祭魚. 旣歸洞陰山中, 閑居無事, 拈韓氏繹史而穩括之, 傍搜諸家州次部居, 名之曰檮儆. 客曰, 公埋沒於古紙堆中, 螢乾蠹老六十年, 屛處林樊, 莫氣崢嶸, 何爲是九九者也. (…) 嗟余生晩, 未及聞先生博論緖餘, 欲講究先生之志於百世之下, 觚墨代樗蒲, 點窟句乙爲布盤點馬, 知我者自當知我心, 不知我者, 亦當喚我如吉水舟中對局之客."

자가 "洋夷犯順"으로 시작되고 있으므로 이것을 편의상 글의 제목으로 삼도록 하겠다. 글의 내용이나 앞뒤의 편차를 참고할 때 이 자료는 1871년 신미양요가 발발하여 광성보 전투가 있었던 직후에 쓰인 것으로 보인다. 글의 제목도 없는 달려 있지 않으므로 일단은 신석희가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둔 비망록 같은 성격의 기록이라 볼 수 있을 듯하다. 그러나 글의 구성은 상당히 정연하게 짜여 있다. 내용상 단락을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피아 대치 상황 검토, 화공책의 필요성 제기
② 아군의 장단점 분석
③ 적군의 장단점 분석
④ 화공의 구체적 작전 개념 구상
⑤ 마무리, 작전에 임하는 비상한 자세 환기

먼저 ①에 해당되는 대목을 살펴보면, 광성보 전투 이후 교착 상태에 빠진 전황을 간략히 정리한 뒤 다음과 같이 정세를 분석하였다.

> (…) 그러나 사실 (저들이) 머물고자 하여도 후원군이 오지 않아 이미 군세를 떨칠 우익이 끊어졌고, 떠나고자 하여도 애초의 계획이 모두 실패하여 귀국할 면목도 없다. 떠나기도 머물기도 어려워 결단하지 못하고 가만히 움직일 기미가 없는 것이 벌써 열흘이 훨씬 넘었다. 한편 우리 상황을 보면 진을 치고 있는 삼군은 머뭇거리며 창끝에 술을 달았다 뺐다 하고 있으며, 서울의 백성들은 솥이 텅 비어 안일함으로 괴로움을 대신하면서 그저 헛된 이름만 부지하고 있으니 이것은 이길 수 있는 계책이 아니다. 지금 유일한 방책은 곧 저들을 몰아내는 것일 뿐이다. 어떻게 몰아낼 것인가? 그것은 또한 화공일 뿐이다. (…)[51]

1871년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광성보에서 큰 전투가 있은 다음 미국 함대가 철수하는 5월 중순까지 양측은 군사 충돌은 피하면서 서신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의중을 탐색하고 있었다.[52] 이 글은 바로 이 시기에 지어진 것

51) 申錫禧, 「洋夷犯順」, 『韋史文稿』 1, 일본 京都大 소장. "(…) 然其實欲留, 則後援不來, 已絶張軍之羽翼, 欲去則初計盡敗, 實無歸國之面目, 去留兩難, 委決不下, 漠然無變動底意者, 今爲數旬. 而我則陣上之三軍, 喬英旋抽, 都下之萬民, 釜甑空枵, 以逸待勞, 徒存虛名, 相守持久, 不是勝算, 到今惟有一策, 卽曰毆之而已. 毆之如何? 亦卽曰, 火攻而已. (…)"

으로 보인다. 신석희는 고민 끝에 교착 상태를 끝내고 화공으로 몰아내야만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던 듯하다. 그런데 조면호의 「후서사잡절」 제34수 주석에 따르면 "11일 경기 중군 梁柱台가 수군을 조련하여 강화 군영으로 갔다. 화공책을 쓰기 위해 다방면에서 검토하였으며 지금 섶을 바다로 운반하고 있다."[53]고 기록되어 있다. 경기 중군 양주태는 제너럴 셔먼호 사건 때 朴珪壽를 보좌하여 화공을 성공시켰던 무장이다.[54] 신석희, 박규수, 조면호의 각별한 관계를 고려해 보면 신석희가 제안한 '화공책'은 실제로 실행 준비 단계에까지 나아갔던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다음으로 아군의 장단점에 대해 분석한 대목을 보면 "아, 우리나라의 무력은 본디 강하여 능히 隋唐 백만의 군사를 꺾었다. (…) 문교가 펼쳐진 뒤로 武備에 소홀해지고 평화가 이백 년 이어져 백성들이 싸움을 알지 못하니 (…) 대오를 나누면 앞뒤가 어긋나고 陣에 임하면 좌우가 함께하지 못하니 이는 저잣거리의 사람을 몰아 전쟁을 시키는 것이다."[55]라고 하였다. 조선 후기에 들어 고구려 등 강력한 고대 국가에 대한 기억이 다시 소환되었던 것은 소중화 사상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식의 소산이었는데[56], 여기서는 그러한 화이론과는 결을 달리하여 실제 서양의 무력을 물리치기 위한 역사적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렇지만 당대의 조선은 문약에 빠지고 말았기에 정공법으로는 도저히 승산이 없으므로 화공법을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이 신석희의 결론이었다. 다음은 적군의 장단점에 대한 분석이다.

> (…) 저 서양 오랑캐는 단독 부대로 수만 리 넓은 바다를 건너 우리나라 국방의 요지에 틈입하니 이는 저들이 반드시 패할 수밖에 없는 형세이다. 저들이 자

52) 신미양요의 전개 과정에 대해서는 김명호, 『초기 한미관계의 재조명』, 역사비평사, 2005, 277-420면 참조.

53) 趙冕鎬, 「後西事雜絶」, 『玉垂集』 卷15. "十一日, 以京畿中軍梁柱台鍊熟水師, 赴沁營節制. 盖有火攻之策, 多般講究, 方今運柴在海中."

54) 김명호, 앞의 책, 2005, 340면 참조.

55) 申錫禧, 「洋夷犯順」, 『韋史文稿』 1, 일본 京都大 소장. "噫, 我國兵力素强, 能折隋唐百萬之師. (…) 自夫文教宣而武略疎, 昇平二百年, 民不知兵, (…) 分隊則前後相錯, 臨陣則左右不共, 此政驅市人而戰也."

56) 허태용, 「17세기 중·후반 중화회복 의식의 전개와 역사인식의 변화」, 『한국사연구』 제134호, 2006, 98-103면 참조.

> 신의 강함을 과시하며 해외 여러 나라를 업신여기는 것은 오직 산처럼 큰 배로 긴 바람을 타고 높은 파도를 깨뜨리며 번개처럼 달려 잠깐 사이에 천 리를 가며, 대포가 아주 커서 포탄이 수십 리에 이르고 소총은 정밀하여 한 번에 대여섯 발을 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서양 오랑캐의 장점이지만 그 장점을 제압할 방법이 있으니 (…)57)

신석희의 분석은 상당히 객관적이라고 보인다. 적 선박의 규모, 속도, 화력의 우수함은 그것대로 인정하지만, 후속 부대가 없기에 구사할 수 있는 작전이 크게 제한되므로 아군의 화공법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 신석희의 판단이었다. 그리고 신석희의 언어가 매우 현실적이고 주도면밀하다는 점에 주목하게 된다. 대개 이 시기 조선의 대외인식에 대한 일반의 인상은 '쇄국정책', '소중화사상', '위정척사사상' 등을 떠올리며 여전히 부정 일변도인 것이 사실이다. 또 사실 이 시기 조선의 식자층에게는 화이론의 관념성으로 인해 현실을 냉철히 직시하지 못한 과오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신석희의 언어에는 그러한 관념성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서 신선함마저 느껴진다. 이러한 신석희의 태도가 당대 사상의 지형도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는 후속연구를 통해 입체적으로 밝혀져야 하겠지만, 대외 관계의 일선에서 오랫동안 실무를 맡았던 경험이 관념성을 극복하는 계기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다.

화공법의 구체적 내용을 모두 인용하는 것은 번다하므로 그 요점만 추려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 화공을 가장하여 적의 공격을 유인할 선박 마련. 물에 푹 젖은 풀을 가득 쌓아 被彈의 피해 최소화. 작은 범선 수백 척을 두 편으로 나누어 한 편은 손돌목과 양화진 사이에 배치하고 또 한 편은 인천과 부평 사이에 배치.
- 화공을 가장한 배를 접근시켜 적의 탄약 소모 유도. 적선이 손돌목으로 향하면 인천에 대기하던 부대가 전선의 후미를 공격하고, 인천으로 향하면 손돌목에서 대기하던 부대가 적선의 후미를 공격. 적선이 이를 우려하여 이동하지 않으면 북과 나발을 이용해 심리전 수행.

---

57) 申錫禧, 「洋夷犯順」, 『韋史文稿』 1, 일본 京都大 소장. "(…) 洋夷以褊師孤軍, 涉重溟數萬里, 闖入於關隘於要害之地, 此必敗之象也. 但其自恃爲强, 憑陵於海外諸國者, 惟峨舸大艑, 駕長風, 破層濤, 星馳電擊, 一瞬千里, 大礮轟殷, 遠及數十里, 小銃精利, 一發五六丸, 此其爲洋夷之所長. 有可以制其所長者. (…)"

- 적선이 汲水를 위해 영종도 남쪽으로 이동할 것을 예상, 영종도와 물치도 사이에 앞서와 같은 모양으로 범선을 배치하여 협공.
- 강화도, 영종도, 물치도, 팔미도 등 좁은 해협으로 적선을 유인 포위하여 공격, 적선끼리의 충돌을 유도.

이러한 작전 구상은 제너럴셔먼호를 화공으로 격침 시켰던 경험을 토대로 나왔을 것으로 생각된다. 당시 전투를 이끌었던 박규수도 정공법으로는 쉽게 제압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대동강 요소요소에 군사를 배치해두고서 땔감을 실은 火船을 일제히 제너럴셔먼호에 근접시켜 방화 작전을 성공시켰다.[58] 그런데 신석희는 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적의 가장 큰 장점인 화력을 무력화하는 방안(유인술)까지 마련하고, 해안가 地勢의 활용을 극대화했다는 점에서 더욱 창의적인 작전 구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듯하다. 다음은 글의 마무리 부분이다.

> (…) 어떤 사람이 말한다. "그대의 말과 같다면 그것은 화공이 아니고 水攻이다." 또 말한다. "불을 붙이는 도구를 빌려와 불을 막는 용도로 썼으니 이는 또한 세상에 전해지지 않은 비결이다." 또 말한다. "兩岸의 바다 水面이 십 리이니 또한 멀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심력을 다하고, 재력을 다 쓰고, 인력을 다 동원하여 모두 고갈되었다. 아무래도 바다를 가로질러 봉쇄할 수 없을 듯하다." 나는 말한다. "남송 때 동정호의 역적 楊么는 車船을 만들어 물을 치며 다녔기에 잡을 수가 없었다. 岳武穆이 君山의 나무를 많이 베어 물길을 막으며 내려가자 이에 양요의 배가 더 내려가지 못하고 드디어 부서지고 말았다. 지금 만약 서해안의 나무를 모조리 베어내도 십 리의 물길을 차단할 수는 없다고 한다면 악무목 부대의 사람들이 껄껄대며 비웃지 않겠는가. 무릇 사람이 修己治人하는 도리는 實心으로 實事를 행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지만, 유독 군대에 대해서는 오로지 변칙적으로 남을 속이는 계책을 쓰더라도 사람들이 그르다고 하지 않는다. 하물며 이 몇 가지 일은 이미 앞사람들이 설파한 것임에랴. 변화에 대응하여 승리하기 위해서는 상황에 따라 온갖 변화를 다 해야 하는데 이는 말로 다 전할 수 없다. 오직 적임자를 얻었는가에 달려 있을 따름이다.[59]

---

58) 김명호, 앞의 책, 2005, 54-65면 참조

59) 申錫禧, 「洋夷犯順」, 『韋史文稿』 1, 일본 京都大 소장. "(…) 或曰, 如子之言, 非火攻, 乃水攻也. 曰借引火之具, 爲防火之用, 亦不傳之祕諦也. 曰水面十里, 亦云遠矣. 費盡心力, 竭盡財力, 殫盡人力, 三力俱病,

신석희는 '혹자'를 등장시켜 자신이 제안한 작전 구상에 대한 평가를 시도하고 있다. 앞 두 개의 언급은 긍정적인 내용이므로 자신의 제안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다. 문제는 세 번째이다. 인적 물적 역량이 고갈된 상태이기에 화공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문제 제기인 것이다. 이에 대해 신석희는 송나라 때 楊么의 반란군 무리를 진압했던 岳飛의 작전을 소개한다. 당시 양요는 '車船'을 활용해 주로 수상 전투를 통해 영역을 확장했는데, 관군은 車船의 위력에 밀려 곤경에 빠져 있었다. 이때 악비는 많은 나무를 동정호에 띄워 車船의 바퀴를 망가뜨림으로써 승기를 잡을 수 있었다고 한다. 신석희가 이와 같은 역사적 사실을 환기한 것은 요컨대 패배주의적 정서에 일침을 가하기 위해서였다고 볼 수 있다. 아무리 어려운 곤경에 처했을지라도 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하면 방법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적극적 자세를 강조한 것이다.

또 '實心'과 '實事'를 강조하는 한편 상대를 속이는 '詭譎欺詐'도 마다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도 각별하게 이목을 끄는 대목이다. 조선은 16세기 이후 모든 대외 교섭을 중국에 일임하며 '人臣無外交'라는 관념적 원칙에 안주해 왔기에 서세동점의 위기를 맞아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했으며, 이러한 관념적 태도가 결국에는 국권의 상실로까지 이어졌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한 점에서 신석희의 이와 같은 현실주의적, 적극적 태도는 높이 평가할 지점이라고 생각된다. 물론 이러한 신석희의 제안이 실현된 것은 아니었고, 이후 역사의 전개 과정에서도 실질적 영향을 끼치지는 못했던 듯하다. 그렇지만 당시 조선 정부의 핵심부에 이러한 흐름이 있었다는 사실의 발견은 적잖이 의미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신미양요를 외교적으로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분투하였던 박규수의 행적과 신석희의 활동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게 되면 이 시기 역사를 좀더 주체적 입장에서 이해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猶恐橫截他不得也. 余曰, 南宋洞庭賊楊么爲車船, 激水而行, 莫可執捉. 岳武穆多伐君山木, 塞港而下, 於是船不得下, 遂爲所破. 今若盡赭西沿之木, 不能遮欄十里之港, 倘不使岳家軍笑人寥寥乎. 大凡人之修己治人之道, 貴在於以實心行實事, 惟獨兵家者流, 專用詭譎欺詐之計, 而人不以爲非. 況此數事, 已經前人之勘破者乎? 若夫臨機制勝之隨處萬變, 非言詮可悉, 惟在將得其人已."

5. 맺음말

이상에서 신석희가 남긴 저술의 현황을 검토하고 관료로서 신석희의 행적을 검토하였으며 시문에 나타난 대외인식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그동안 자료 부족으로 인해 신석희 관련 연구가 부진하였으나 이제는 해외로 유출되었던 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본격적인 연구가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관련 자료를 활용해 관료로서 신석희의 활동을 조사해본 결과, 가장 중요한 부분은 외교문서 작성에 깊이 관여했다는 점이었다. 외교문서 작성과 관련이 없는 직책에 있을 때도 신석희는 외교문서 작성 작업을 계속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신석희는 대외 관계에 있어서 정보가 풍부하고 고민도 많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그의 시문에 나타난 대외인식을 검토해 본 결과, 그는 일찍부터 海防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역사 자료를 수집하는 등 나름의 준비를 하였으며, 신미양요가 발발하였을 때는 水原留守로서 구체적인 火攻 작전계획을 입안하는 등 서양세력의 침투에 대비한 현실적 방안 마련을 위해 꾸준히 노력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준비와 대비가 뜻과 같이 실현되지는 않는 현실에 신석희는 울분을 느끼며 이러한 감정을 시로 표현하기도 하였던바 그는 상당히 열정적 성품의 소유자가 아니었을까 짐작된다. 본고의 성과를 토대로 신석희의 문학과 사상에 대한 후속 연구가 활성화되고, 아울러 신석희의 사례를 통해 19세기 중반 조선의 대외 관계에 대한 이해도 넓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문헌

申錫愚・申錫禧, 『瓊琚』, 고려대학교 도서관 소장.
申錫禧, 『韋史文稿』, 일본 京都大 소장.
_____, 『韋史詩稿』,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_____, 『韋史詩草』, 고려대학교 도서관 소장.
_____, 『韋史集』,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李裕元, 『林下筆記』, 서울대 규장각 소장.
趙斗淳, 『心庵遺稿』, 서울대 규장각 소장.
趙冕鎬, 『玉垂集』, 서울대 규장각 소장.

신미양요기념사업회, 『雙忠集』, 신미양우기념사업회, 1984.

김명호, 「환재 박규수 연구(2)—은둔기의 박규수 상」, 『민족문학사연구』 통권 6호, 민족문학사학회, 1994, 41-81면.
_____, 「옥수(玉垂) 조면호(趙冕鎬)의 〈서사잡절(西事雜絶)〉 전후편에 대하여」, 『고전문학연구』 제20집, 한국고전문학회, 2001, 305-327면.
_____, 『초기 한미관계의 재조명』, 역사비평사, 2005.
_____, 「해장 신석우의 『입연기』에 대한 고찰」, 『고전문학연구』 제32집, 한국고전문학회, 2007, 465-488면.
_____, 『환재 박규수 연구』, 창비, 2008.
김용태, 『19세기 조선한시사의 탐색』, 돌베개, 2008.
_____, 「박규수의 시사활동 연구—시사 동인들의 자료를 중심으로」, 『환재 박규수 연구』, 학자원, 2018.
김윤조, 「실학파문학의 계승양상에 관한 연구—특히 북학파의 경우를 중심으로—」, 『대동한문학』 제8집, 대동한문학회, 1996, 227-262면.
김흥수, 「한일관계의 근대적 개편과 대마도」,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7.
노대환, 「조선 후기 서양세력의 접근과 해양관의 변화」, 『한국사연구』 제123호, 한국사연구회, 2003, 341-377면.
박종천, 「척사윤음 연구」, 『종교학연구』 제18집, 한국종교학연구회, 1999, 125-150면.
박찬식, 「신헌의 국방론」, 『역사학보』 제117집, 역사학회, 1988, 39-85면.
연갑수, 『대원군집권기 부국강병정책 연구』, 서울대 출판부, 2001.
이관성, 「해장 신석우의 생애와 문학론」, 『한문학보』 제17집, 우리한문학회, 2007, 473-497면.
이지은, 「신석우의 『입연기』를 통해 본 조선의 국제정세인식」, 『사학지』 제58집, 단국사학회, 2019, 1-21면.
장진영, 「海藏 申錫愚의 『入燕記』 硏究」,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2011.
平山申氏思簡公派宗中 編, 『平山申氏思簡公派譜 2』, 회상사, 1990.
하정식, 「태평천국과 1850-60년대초 조선왕조의 위기의식」, 『동방학지』 제87집, 연세대 국학연구원, 1995, 1-50면.

허태용, 「17세기 중·후반 중화회복 의식의 전개와 역사인식의 변화」, 『한국사연구』 제134호, 한국사연구회, 2006, 75-109면.
黃玹 저, 임형택 외 역, 『역주 매천야록』, 문학과지성사, 2005.

고려대 해외한국학자료센터, http://kostma.korea.ac.kr/.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

【Abstract】

The Directionality of the Perspective on International Relationships, Reflected in WiSa, Shin Seok-hee's Writing —Focusing on the Response to Korea Invasion by Western Power—

Kim, Yong-Tai*

At the time of Shinmiyangyo ('United States-Korea war of 1871'), Shin Seok-hee was a high-ranking official who was responsible for defending the West Coast as a local official in Suwon. In addition, he led the poetical circles in Buckchon of Seoul in the mid-19th century with Park Gyu-su, Shin Seok-woo, and Jo Myeon-ho. He was a considerable person to understand historical circumstances and literary history in those days, but the study on him has not been intensively researched because most of the materials related to him scattered abroad. However, materials and document relevant to Shin Seok-hee including his anthology, which kept in Japan, recently open to Korea. This paper is the first study on Shin Seok-hee in Korean academia and it examines his aspects of activity and ideological orientation as a government official.

Shin Seok-hee became government official at 35 in 1842 and ended his life as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by the time he was 66 years old in 1873. He kept getting involved in writing diplomatic documents since 1861. He was able to participate in the preparation of diplomatic documents because of his outstanding writing skill. We believe he gained extraordinary insight into the state of affairs overseas of those days through these activities.

Shin Seok-hee collected, organized, and researched books of tactics in-depth since he felt the necessity of defending the seas ahead of his time. We consider that he was the person who preferred to fight with the Western invader with the military strength rather than diplomatic means. Accordingly, he threw himself, heart and soul, into defending Suwon and the West Coast as a local official in Suwon when the United States-Korea war of 1871 broke out, and he also made a specific military operation

* Associate professor, Dept. of Korean Literature in Classical Chinese, Sungkyunkwan Univ.

to use fire to attack enemy ships.

In summary, Shin Seok-hee's perspective on international relationships is clearly distinguished from Wijeongcheoksa ('the ideology of protecting righteousness and expel wickedness') so that it should be re-examined its significance through the broad discussion.

Keywords: Shin Seok-hee, Shin Seok-woo, Park Gyu-su, Jo Myeon-ho, Shinmiyangyo ('United States-Korea War of 1871').

접수일: 2020.06.30. ‖ 심사일: 2020.07.09. ‖ 게재확정일: 2020.08.17.